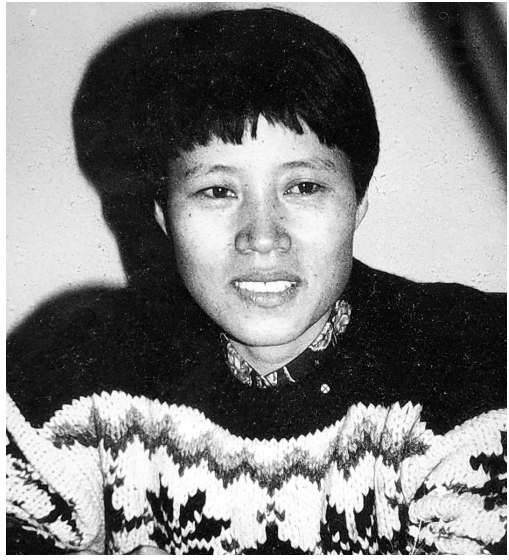


# 시서화로 보는 '고정희 시인' 삶과 문학

해남 출신 여성·문화 운동가  
오월미술관서 32주기 시서화전  
기독교 신앙·5월 광주 상흔 등  
민중 고난·저항정신 시로 형상화



젊은 시절의 고정희 시인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낙엽이 흔들리거나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나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나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중에서)

지난 1991년 6월 9일 43세로 생을 마감한 해남 출신의 고정희 시인은 여성운동가이자 문화운동가였다. '여성신문' 초대 편집 주간을 역임했으며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한 주옥같은 작품을 썼다. 또한 5월 광주의 상흔을 남도 가락 형식에 담아 민중의 고난과 저항을 자신만의 언어로 형상화했다.

올해로 32주기를 맞아 시인의 주요 작품을 손글씨로 꾸민 시서화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고정희기념사업회(회장 강순이)가 오월미술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고정희 시화전 상한 영혼을 위하여'가 그것.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시서화전은 고정희문학회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사)또하나의 문화,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YWCA, 세종손글씨연구회, 오월미술관, 해남민예총미술위원회가 후원한다.

강순이 기념사업회장은 "일관하는 시와 삶의 진정한 일치, 폭발하듯 써 내려간 언어의 박동,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상상과 활기는 고정희 시인의 근원이라 하겠다"며 "살아남은 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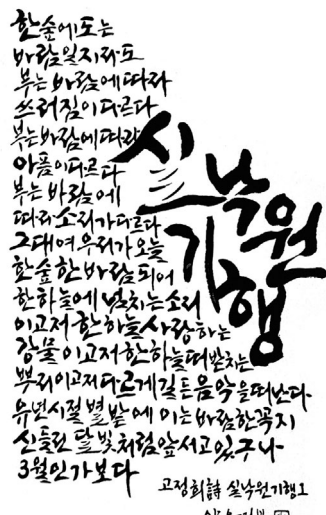
의 슬픔과 신념을 다한 최선의 애도, 고통 연대를 통해 역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염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은 시를 함께 느껴보는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시서화전은 지난 6월 고인의 고향인 해남(문예회관)에서도 열려 주목을 받았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전시 주제가 말해주듯 고정희의 시는 사회적 약자, 고통에 신음하는 자, 착취에 당하는 자 등을 향한 애정과 위로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번 오월 전시실에서는 손글씨 작가 27명의 31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고정희 시인의 대표작들의 일부를 발췌해 저마다 손글씨로 꾸민 시화전의 고유하게 빛나는 고인의 시 정신을 대면하는 기회이다.

오월미술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터 전시된 시서화 작품들은 본 전시장 벽면을 빼곡하게 수놓고 있다. 하나하나 모두 '명시'들은 작품들에선 생전에 고인이 외쳤던 시대를 향한 고연과 아픔, 소외되고 낮은 자에 대한 연민, 삶에 대한 희망 등이 담겨 있다.

참여 작가로 백인석(누가 홀로 슬픔을 받고 있는가), 허성희(상한 영혼을 위하여), 양은경(실낙원 기행1), 김정혜(프라하의 봄1), 송정선(정산별곡), 김미정(어머니 나의 어머니), 조성숙(땅의 사람들14), 조원명(우리 동네 구자명 씨), 김미화(우리 붓물을 트자) 등이 저마다 개성적인



양은경의 손글씨 '실낙원 기행'

손글씨를 선보인다.

저마다 개성적인 서체에 담긴 고정희 시인의 시는 오늘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걸기를 해오는 듯하다. 지난 시대에 박제돼 있지 않고 현 시대와 호흡하며 불의와 부조리한 세태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는다.

"오 아벨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안락한 처마 밑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던 우리들의 아벨./너희 따뜻한 난롯가에서/ 함께 몸을 비비던 아벨은 어디로 갔는가/ 너희 풍성한 산해진미 잔치상에서/ 주린 배 움켜 쥐던 우리들의 아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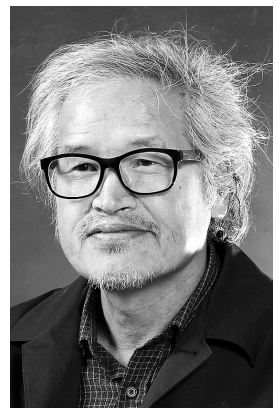
이도환이 손글씨로 쓴 '이 시대의 아벨'은 약자, 가난한자를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에만 매몰된 이들을 향한 준엄한 꾸짖음으로 들린다. 이도환은 "자살하는 이들 대부분은 삶이 더 팍팍해지는 세상살이에 지친 사회적 약자들이다"며 "어느 시대인들 아벨을 찾지 않은 시대가 있었겠는가마는, 오늘의 사극이 더욱 '이 시대의 아벨'을 찾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한편 고정희 시인은 1975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누가 홀로 슬픔을 받고 있는가', '실낙원 기행', '초혼제', '이 시대의 아벨', '지리산의 봄', '광주의 눈물비', '아름다운 사람 하나' 등을 펴냈다. 유고시집으로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농부 시인 '농촌의 삶'

송만철 시인, 여섯번째 시집 '흙에서' 펴내

송만철(시인) 시인은 보성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그의 시에는 전라도 언어로 형상화한 농촌의 삶이 담겨 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고!" 위 시 '길'에서는 오늘 우리의 농촌의 현실을 짚어주듯 '고발'하고 있다. 문명과 자본주의화로 인해 점차 말살해가는 환경과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아팠면서도 반성적이다.

이봉환 시인은 "송만철 시인, 그가 그토록 돌아가고자 하는 세상은 어디일까. 그가 찾고 있는 세상은 시에서나 생에서나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불교적 시원과 맞닿아 있다"고 평한다.

이번에 송만철 시인이 여섯 번째 펴낸 '흙에서'(문학들)는 신선스러운 농촌의 삶을 그리는 한편 흙의 본질, 생명의 존귀함 등을 노래한다. 그렇다고 시인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는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목청을 높이지도 않는다. 그에게는 사람으로 사라져 버린 길들, 못 생명들도 더없이 소중하다.

"햇살이 꿰어찬 산들바람이 인자 어디로 갈래 새들이// 숲이 베어지고 질퍽덕한 나무들/ 토막 처진 봄여름가을겨울// 산 길이 뚫리며/ 길이 길들이 사라졌구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다음의 시 '이순'도 자연과 우주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지막이 속삭이고 있다. "눈이 있어 눈만 떠 온 날들이 얼마나 귀가 막히나/ 인자, 눈 감고 귀동냥으로 연명하리// 이 들판 저 냇가 햇살도 귀로 만져 보리라/ 하루내 비안개 깔린 산 너도 귀로 보아 두리라!"

한편 고흥 출신 송만철 시인은 '불교문제'로 등단했으며 시집 '참나리꽃 하나', '푸른 빗줄기의 시간', '엄니', '물결' 등을 펴냈다. 송수권시문학상(남도시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정우성 "감독이자 배우로 왔습니다"

영화 '보호자' 제작보고회... 첫 장편 연출작 주연도 병행

"정해져 있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익숙한 스토리 안에서 연출로써 나의 색깔을 넣을 수 있는 큰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었죠."

정우성(사진)은 24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보호자' 제작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떨리기도 하고, 어떤 영화로 비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민감이 교차한다"고 개봉을 앞둔 소감을 털어냈다.

다음 달 15일 개봉하는 '보호자'는 정우성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그가 직접 주연도 맡았다.

당초 이 영화는 정우성이 주연하고, 다른 감독이 연출하기로 돼 있었지만, 감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정우성이 연출까지 하게 됐다.

'보호자'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살인죄로 수감됐다가 10년 만에 출소한 수혁(정우성 분)이 겪는 일을 그린 액션 영화다.

자에게 맡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혁은 평범한 삶을 추구하지만, 과거 몸담았던 조직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조직의 보스 응국(박성웅)은 2인자 성준(김준한)에게 수혁을 감시하라 지시하고, 수혁에게 열등감을 가진 성준은 우진(김남길)과 진아(박유나)를 시켜 그를 제거하려고 한다.

제작진은 관객에게 익숙할 수 있는 이야기에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캐릭터와 액션을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정우성은 수혁이라는 캐릭터의 특징을 '딜레마'로 표현하며 "폭력이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였던



사람이 10년 뒤 폭력이라는 단어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행위가 이뤄질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다양한 액션을 담고 있다. 자동차 추격뿐 아니라 총격과 맨몸 격투도 펼쳐진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무술 감독이었던 허병행 감독이 액션을 담당했다.

정우성은 '나와 S4 이야기' (2013), '세가지 색-삼생' (2014), '킬러 앞에 노인' (2014) 등 단편 영화를 연출한 적은 있지만, 장편 연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호자'는 제47회 토론토국제영화제, 제55회 시애틀국제영화제, 제42회 하와이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됐다. /연합뉴스

# 독일의 피카소 '파울라' 생애와 예술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상영회'

독일의 여성 화가 파울라 모더존 베커(1876-1907)는 미술 외에도 문학 분야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예술을 꽃피웠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예술적 성취에 비해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했다.

파울라 모더존 베커의 생애와 예술을 그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 하정웅미술관은 26일(오후2시) 크리스찬 슈비츠보 감독의 영화 '파울라'를 모티브로 그의 생애와 예술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2023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상영회' 3회차로 기획된 이번 감상은 시대적 한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성취에 대한 깊은 사유와 고민을 했던 예술가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서사 소개는 이상훈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예술감독이 맡는다. 영화 연출 및 기획 전문가인 이 감독은 영화 내용의 기술과 분석을 뛰어넘어 영화 메커니즘 분석, 미학적 비평 등 심도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이 감독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10년 이상 활동해오고 있으며, 2000년대 초중반 파리한국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로 한국영화를 프랑스 및 유럽에 알렸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 세계의 다수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준기 관장은 "파울라는 독일에서는 마티스, 피카소에 비견될 만큼 주목받는 작가이지만 독일 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대적 한계를 넘어 자신만의 예술을 성취했던 파울라의 역동적인 삶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비 무료이며, 선착순 방문제로 운영. 다음 8월 30일 상영회에서는 구스타프 클림트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를 만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